

## 탄녹위, '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'로 명칭 변경

-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,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위상 강화

□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위원장: 김민석 국무총리)가 내년 1월 1일부터 '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'로 명칭이 변경된다

○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(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, 이하 기후위)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·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·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.

\* (연혁) 2050 탄소중립위원회('21.5.29)와 녹색성장위원회('13.10.30) 통합·출범('23.3.25~)

□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「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(탄소중립기본법)」 개정에 따른 것으로,

○ 기존 명칭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적 측면만 드러냈다면, 새로운 명칭은 현재의 기후위기 심각성을 반영하고,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예측 및 기후재난 대응을 포괄하는 국가적 책무를 보다 명확히 담아내고 있다.

□ 김용수 기후위 사무처장은 “이번 명칭 변경 외에도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국민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, 정책 조정 및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개편을 추진 중”이라며,

○ “향후 기후위가 명실상부한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 기획평가과	책임자	과 장	손선미 (044-200-1916)
		담당자	사무관	나찬미 (044-200-1917)